

장성 출신 서울 우신초 나혜림 교사



“남도학숙 은혜, 장학금으로 돌려 드립니다”

“꿈에도 그리던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남도학숙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제는 저도 돌려 줘야죠.”

나혜림(여·23)씨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보면 팬스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나씨는 매월 남도학숙으로 5만원씩 송금하고 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후배들이 어려움을 딛고 사회에 필요한 그릇들로 커나도록 돋고 싶다며 보내고 있는 것.

매월 5만원씩 송금 적립

지난 5월 서울 우신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뒤 내린 결정이다. 초봉으로는 턱없이 비싼 물가에 훌로 자취하면서 생활하기도 뻔하듯이 4년간 남도학숙에서 받았던 것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난 2006년 남도학숙과 인연을 맺었다. 장성 출신으로 순천여고를 나온 뒤 서울교육대(국어교육 전공)에 입학한 나씨에게 가장 큰 고

민은 숙소였다. 서울에서 웬만한 돈으로는 번번한 방 하나 구하기 쉽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때마침 남도학숙 신입생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고 치열한 경쟁을 펼고 선발됐다. 그만큼 타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방 구하기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씨는 학교 생활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됐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나씨는 그러나 “단순한 편한 기숙사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외로운 객지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도, 다른 대학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실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게 나씨의 설명이다.

광주·전남 출신 서울 유학 대학생들의 기숙시설인 탓에 처음 만나는 학생들인데도 낯설음보다 친근감이 훨씬 더했다는 것이다.

나씨는 “혼자 서울에서 4년을 생활했지만 외롭다,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교사 임용고시 1차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상담도 받았다”면서 “임용고시를 1주일 앞두고는 엇과 합격을 기원하는 편지까지 보내줬다”며 남도학숙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했다.

“내가 받은 것 후배들에 나눠줘야”

나씨가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도다. 나씨는 “후배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씨의 기탁금은 매 20개월마다 100만 원이 모아지면 남도학숙 내 1명을 장학생으로 선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쓰여진다.

한편, 박운영 전남도지사도 23일 “어려울 때 도움받고 조급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되돌려주는 이런 선순환구조가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감사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육아원 초청 베니스 글라스판타지아 관람



동부소방서(서장 배성근)는 지난 20일 무등육아원 아이들과 함께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베니스 글라스판타지아를 관람했다. <동부소방서 제공>

수완고 ‘꿈을 향한 샤우팅’ 솔빛축제



수완고등학교(교장 최장호·왼쪽에서 네번째)는 지난 20일 ‘꿈을 향한 샤우팅’이라 주제로 제1회 솔빛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1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전시미당과 물풀선 터뜨리기 등 체험마당·공연마당·나눔마당 등의 행사로 열렸다. <수완고 제공>

광주 3총사 지적장애인축구 남아공 월드컵 나간다

한성주·이준석·조현우씨

광주시장애인 축구협회 소속의 한성주·이준석·조현우씨가 지적장애인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월드컵 원정 16강 영광 차원에 나선다.

국제지적장애인연맹(INAS-FID)이 주관하는 제 5회 지적장애인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가 21일 남아공 립포포주에서 개막했다. 9월 12일까지 23일간 진행되는 이번 월드컵에는 대체로 16개팀이 출전해 우승을 다퉬다.

한국은 주최국인 남아공과 폴란드, 포르투갈과 함께 A조에 속해 있으며, 한성주·이준석·조현우씨를 포함한 26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그리운데 오른다.

지능지수 75이하의 지적장애인 축구선수들이 참가하는 지적장애인월드컵은 199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3회 연속 출전



이다.

대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끝난 후 동일 개최국에서 열리며 경기장 규격과 시간, 규칙 등은 일반 월드컵과 같다. 다만 선수 보호를 위해 경기 중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주일 법사 제자들 전남대 발전기금 1억

불교경전 한글화 작업을 통해 호남불교에 크게 공헌한 현공 윤주일 법사(1895~1969)의 제자들이 전남대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현공 윤주일 법사 제자 모임인 ‘현립회(玄林會)’는 지난 20일 전남대 김윤수 총장을 만나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쏟아라며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순규 현립회 회장(서남대 의과대학 교수) 내외를 비롯해 김민영(부산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김태룡, 이민석, 전윤수씨 등 현립회 회원들이 함께 했다.

한편 현공 윤주일 법사는 강진 출신으로 지난 1914년 일본에 건너다 대정



대학에서 불교학을 수학하고, 1916년 서울 대각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항일 운동과 불교 대중화 사업에 힘썼으며 1925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박약 아 시설인 평상 자생원과 고아원 원장을 맡았고 명성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광주시 남구청

◇5급 승진 ▲방립1동장 주 응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행섭

◇6급 승진 ▲총무과 김동선 ▲복지

기획과 정운영 ▲노인장애인복지과 오

범별 ▲경제과 이상득 ▲사무동 신병수

▲복지기획과 최은주 ▲문화홍보실 노

욱환 ◇7급 승진 ▲월산4동 이언래 ▲

주2월동 김용훈 ▲봉선1동 장 원 ▲세

무과 김필원 ▲세무과 김미영 ▲교통과

김종태 ▲保健동 조민록 ▲문화홍보실

서은주 ▲도시공원과 최문석 ▲도시안

전과 윤형식

영향력 1위 종교인

故 김수환 추기경



주간지 시사저널이 지난 달 22~30 일 국내 관료·기업인·교수·사회단체 관계자·언론인 등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리

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해 최근호(18일자)에 실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29.4%)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연요리 경연’ 최우수상

광주여대(총장 오장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제4회 전국 연(蓮)요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조상래·윤여정·김빛나(4년)씨 등이 최근 무안군 일로을 화산백련지에서 개최된 ‘무안 대한민국 연(蓮)산업축제’ 기간 중 열린 제4회 전국 연(蓮)요리 경연대회 ‘무안연쌈밥’ 달인전’ 요리경연에 참가했다.

여기에서 조성래씨는 연개떡·장떡·완자연쌈밥으로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상금 100만원)을 차지했다. 윤여정씨는 연회역·연참치구이’로, 김빛나씨는 연단호박밥·연잎쇠고기



장려상을 받고 있는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김빛나씨.

말이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30일(월)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8시 광주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 30분~7시30분. 011-618-7882.

▲볼소리 무용학원 수시모집=발레·재즈·방송댄스 등 초·중·고등부 및 성인·취미반 모집, 차량운행. 062-955-4200.

▲복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생 모집=풍수지리, 생활역학, 명성보감, 관상학, 노래교실. 062-527-7701.

▲탁주·악주·증류주 등 전통주 제조법 수강생 모집=조선대 평생 교육원(월요일 오후 7~9시), 호남대 평생 교육원(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문의 조선대 (062-230-7700), 호남대(062-370-8211).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클라리넷& 색소폰 회원 모집=

권도(태글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만, 미용, 양성, 호흡, 경락신법)

태권무도, 남녀노소 3월개강(동구청소년수련관) 070-8235-5688, 010-3974-5699.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능성,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능성 등, 손님용 뜴방 및 친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

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베네수엘라 인도양원 어르신을

모심=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 편성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용부담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시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 같은 마음으로 어른신들을 모심. 061-371-8090.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 모집

=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 댄스 및 어여로박. 지원자격은 대학

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부 음

▲조복심씨 별세 박용일·용남·선자·선주씨 모친상=발인 24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노관돌씨 별세 인길·인호·인

환·인영씨 부친상=발인 23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관진씨 부친상=발인 24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227-4000.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평수지리 시민 무료 공개강좌=28일(토) 오후 2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본관 1층, 평수리지 천년의 허와 실·영상강의 토의·헬토와 명당지도 등 강의. 011-629-7240.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음악교育,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